



칠석등 제작하는 모습.



다례에 앞서 손을 씻는 차인들.



문경다례원의 행사 시연.



문경 칠석 차문화 축제에서의 춤 공연.

차 올리며 풍요·화합 기원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월 칠석(양력 8월 22일)을 맞아 전국의 차회에서 다양한 칠석다례를 열었다. 칠석에 차를 올리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차계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 불교와 칠석

토속신앙이 불교화된 사례 불가 칠석 정진법회등 열어

칠석은 세시풍속이 불교화 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칠석은 일월성신 신앙, 특히 칠성(七星)을 신앙하던 토속신앙이 불교와 습합된 전통신앙으로, 불가에서는 이날 '치성광 부처님'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리는 날로 전해진다.

따라서 칠석에 성대한 재를 열어 업장소멸을 기원하고 이는 7일 뒤인 우람분절까지 이어진다.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칠석날 전국 사찰에서는 재를 올렸다고 한다. 칠석재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내용의 기도 내용이 덧붙여진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밀전병과 햇고리 등을 차려놓고 칠석을 맞았다. 또한 부녀자들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기도 했다. 이러한 풍습이 불가의 수행법과 어우러져 칠석 정진법회 등

▶ 칠석 다례

문경다례원·명원문화재단 등 전국 규모의 차 축제로 발전

으로 자리 잡게 됐다.

칠석을 맞아 칠석 다례제를 여는 차회도 점차 늘고 있다. 문경다례원(원장 고선희)이 지난 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문경 칠석 차문화 축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칠석다례 행사다.

21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8회 문경 칠석 차문화제'에는 800여 명의 차인과 지역민들이 참가해 칠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칠석등 달기와 찻사발 품평회, 칠석다례, 두리차회 등이 펼쳐졌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차인 소장 작품 100여 점이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선희(48) 원장은 "만남과 기원의 의미가 깃들여 있는 칠석다례는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의 칠석다례와 궁중의 칠석다례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며 "까마귀와 까치에 의해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칠석날 차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만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칠석다례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97년 '문경 차문화 축제'로 개최되기 시작한 이 행사는 4회 때부터 '문경 칠석 차문화제'로 이름이 바뀌어 이어져 오고 있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도 매년 칠석다례를 열고 있다. 명원문화재단은 8월 25

일, 오후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운현궁에서 칠석다례를 열 예정이다. 김의정 이사장은 "농사와 길쌈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나타내는 칠석에 차를 올림으로써 풍요와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칠석다례의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 보천다회(회장 지민)와 부산의 동다송문화회(회장 박수자), 관정다도원 등도 칠석을 전후해 칠석다례를 열어 만남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여수령 기자



다기 품평회.

사진제공=월간<다도>.

석왕사 찻집 '다인', 장애인 다도 교육 현장

몸은 힘들어도 표정만은 진지



시흥 장애인종합복지관 '여름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석왕사 찻집 '다인'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차를 우려내고 있다.

"여기가 어디야?" "애들이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지!"

8월 16일 오전 11시.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부천 석왕사의 찻집 '다인'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튼비니(이사장 영담)가 운영하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름학교'의 일환으로 다도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아이들 9명과 자원봉사자 8명이 들어서자 찻집은 순식간에 꽉 찰다.

사회재활팀 이구호 팀장은 "요즘 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이들이 실제 차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직접 차를 우려 봄으로써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도교육을 기획했다"고 말한다.

이어지고 본격적인 다도수업이 시작됐다. 숙우(물식힘사발)에 물을 따르고 그 물을 다시 잔에 따른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도 이들에게는 큰 혼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다. 바닥에 물이 흐르고 다구가 흐트러져도 아이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이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광석익(12)군은 맹보라(24) 학생의 설명에 집중하며 골짜기 따라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다구도 정확 제자리에 놓고 차도 적당하게 넣어 탕관에 넣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자신이 우려 차를 마시며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던 상익이가 차 한 잔을 들고 별책 일어나 선생님에게 다가간다. "선생님도 차 마셔요" 1시간 동안

이구호 팀장 "정서순환 도움 위해 기획"

나누는 행위 통해 성취감·공감대 형성

하지만 수업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영광'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훌쩍훌쩍 울자 담당자도 한 명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 또 한편에서는 다구 손잡이가 부서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는 '다인'의 오숙 사범과 사회복지사들. 과연 다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나서야 다도 수업이 시작된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다포를 걸자 아기자 기한 모양의 다구들이 나타난다. 처음엔 심드렁한 표정이던 아이들이 이것저것 만져보며 "이건 뭐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본다. 일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듯 보였다. 다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의 수업 시간 내내 긴장했던 오 사범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오 사범은 "차를 우려내 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를 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들의 정서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을 마친 후 자신이 우려 차를 물통에 담아 들고 찻집 문을 나서서 아이들. "좋아요" "싫어요"라는 단순한 말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차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한편 이날 사용된 차는 인사동 동방예술사대표 여지악에서 무료로 보시해 다도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여수령 기자

※ 기사 넘쳐 이번 주 '우리 사찰 차모임'은 쉽니다.

'Tea Museum' 개관

롯데백화점이 8월 18일 서울 소공동 본점 식품매장에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티 뮤지엄(Tea Museum)'을 개관했다(사진). '티 뮤지엄'은 서울 압구정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차 전문 판매점이다.

롯데백화점 지점에서는 중국과 대만, 홍콩, 영국 등에서 수입한 보이차와 우롱차, 홍차, 카모마일 등 50여 종류의 차를 구비하고 매일 2~3가지 종류의 시음회를 연다.

식품매입팀 조정주 계장은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일반인들이 차에 대한 관심이 높

아 차 전문 매장을 마련하게 됐다"며 "건전한 차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2)515-2350

천한봉 명장 첫 개인전

도에 명장(95-19호) 문경주 천한봉(72·사진) 대표가 9월 9일부터 8일간 대구시 대덕문화전당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우리 찻그릇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천 대표가 개인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천 대표의 대표적인 찻사발 작품과 일본 황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화병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622-0703

여수령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편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